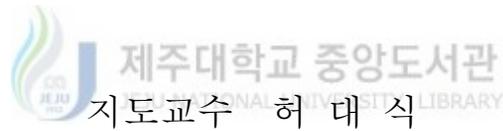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학교 관악대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효율적 활용(공유) 방안 연구

- 제주지역 12개 고등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수봉

2006년 8월

학교 관악대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효율적 활용(공유) 방안 연구

- 제주지역 12개 고등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허 대 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제출자 김수봉

김수봉의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목 차

<국문초록>	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기대효과	3
II. 본론	4
1. 관악의 발달	4
가. 관악교육의 역사적 조사	4
나. 우리나라 관악의 활동	6
다. 제주지역 관악의 역사	10
2. 고등학교 관악대 활동	18
가. 관악대 활동의 교육적 효과	18
나. 관악대 활동의 문제점	19
3. 제주지역(고등학교 중심) 관악대의 운영 및 악기보유 현황	21
가. 관악대의 역사 및 활동	21
나. 각 학교 관악대 악기보유 현황	28
다. 각 학교 관악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악기 공유 방법(문제점 포함)	33
라. 지도교사의 자세	35
III. 결론 및 제언	38
<참고문헌>	41
<ABSTRACT>	43
<부 록>	46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예·체능교육, 특히 음악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입시위주로 학교운영을 하는 교육행정에 영향을 받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관악대(Brass Band)의 경우는 더욱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지도교사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루 종일 잡무에 시달리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지도교사에게 체계적인 지도법의 연구라든지 헌신적 노력의 요구는 무리이다. 학교운영자(재단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끊임없는 관심과 재정적 지원 노력, 지도교사의 열성과 사명감이 한데 어우러질 때 학교 관악대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될 수 있다.

고등학교 관악대 활동은 관악기에 대한 체험과 관악기 연주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 활동이다. 그러나 관악대 운영과 관련된 시설, 지원, 인식, 지도 방법상의 문제점과 학교 간 정보 교환의 미비로 관악대의 발전이 담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 현황과 운영 방법을 조사 분석하여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시 효율적절하게 악기를 공유(대여 및 공차)하여 연주력 향상은 물론 악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제주 관악의 역사와 활동 사항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가?

둘째, 고등학교 관악대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 현황과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관악대의 보dana은 연주력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악기 활용(공유)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 12개 고등학교 관악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관악대의 운영, 연습 및 연주 활동, 지도교사의 실태, 관악

기의 보유현황 및 활용방안 등 관악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교사 설문 조사 결과 관악대는 주로 지도교사는 관악을 전공한 남자교사였다. 교육 환경 및 활동 상황이 다소 양호하나 지도교사 수당 미지급,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악기 구입 및 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관악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학교, 지방 소재 학교, 공립학교, 인문고교에 관악대를 창설하여 운영하여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지원체제 강화로 예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셋째, 악기별 연주법은 파트별로 강사를 위촉하여 학생들을 지도를 함으로써 지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넷째, 다양한 악기 사용을 통하여 연주력 향상은 물론, 발표기회를 제공하여 성취감을 갖게 하고 연주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극이 되게 한다.

다섯째, 지도교사는 관악의 역사와 악기 교육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학생들 자신이 관악대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관악대 지도 교사들이 겪게 되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관악대 활동은 연주력 향상과 개인 기능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시설 부문의 환경을 개선해야만 한다. 이는 관악 교육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이다.

필요시 각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악기를 유효적절하게 활용(공유)하여 연주력 향상은 물론 악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음악적 정서를 기르고 음악을 애호하게 하며, 음악의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게 하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악대 활동은 학생들에게 인간적 성숙 및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서론

여러 분야의 음악활동 중에서 관악은 풍부한 음량과 기동성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행진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음은 물론, 실내외를 막론하고 Marching이나 Concert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연주가 가능하므로 인간생활에 보다 밀착되어서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관악합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목적은 전인교육의 내실화와 합주능력의 배양에 있으며 합주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주요 관심사는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방법의 모색에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으로 볼 때, 대부분 학교에서 관악합주는 주로 특별활동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도교사나 학생들은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연주력 향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도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연주에 필요한 악기의 부족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음악적인 소양을 넓혀 주기 위한 선행학습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제주 지역의 관악 활동사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일선 교육 현장에서 관악합주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여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악기를 활용(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있다.

학교에서의 관악합주는 때에 따라서는 교육의 목적보다는 연주 그 자체만을 중시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의 목적은 학생들이 관악합주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악기를 갖출 수 있도록 교사가 해야 할 지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과 땀 흘리는 관악대 지도교사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고등학교 수업체제는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관악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관악대 활동은 학생들이 관악기와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음악교육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학교 육성 종목으로 특기생 육성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그 참여 인원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악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관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체험을 갖게 하며, 학교 학생들에게는 관악기 음악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이 관악대 활동이 바람직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악기 가격이 고가여서 손쉽게 구입하기 어려울뿐더러 연습 및 연주할 때의 소리 공해로 인해 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와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의 관악대 활동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관악대 활동을 소홀히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 악기가 남아도는 있는 학교도 있다. 또한 연주 필요성에 따라 구입한 특수악기 및 타악기들이 방치됨은 물론, 예산 및 재정 부족으로 인한 고가의 악기구입이 불가능하여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관악대 운영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도 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관악대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관악대의 악기현황과 운영 방법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악대 운영의 실태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관악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준거를 추출하고,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즉, 음악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관악대를 육성 지도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학교 음악교육 및 관악대의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은 연구 기관과 자료의 처리 및 용이성을 고려하여 제주도관악협회와 제주국제관악조직위, 제주지역 관악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로 하였다. 해당 학교로는 남녕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주상업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등 12개 학교이다. 우리나라와 제주지역 관악활동사에 대해서는 각

중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12개교 관악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관악대의 운영, 연습 및 활동, 지도 교사의 실태, 악기의 보유현황에 대한 설문지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각 학교 관악대의 연혁과 관악대의 악기 현황을 밝히고 그 문제점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연구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음악 활동이 보다 더 바람직한 음악교육의 효과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이었으며, 관악대 지도교사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각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 내용 및 구성은 이 연구에 필요한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항목별로 작성하였고, 이렇게 하여 수집된 자료를 각 문항의 내용별로 분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학교수로 환산·처리하였다.

3. 연구의 기대효과

고등학교 관악대의 운영 방법은 학교 실정과 관악 부원의 음악적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며, 지도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운영의 기술에 의해 성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제주도 지역 12개교의 고등학교 관악대를 대상으로 연구, 표집한 것이므로 상황과 여건이 다른 고등학교 관악대일지라도 각 학교 관악대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를 유효적절하게 활용(공유)하여 연주력 향상은 물론 소중한 악기를 더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한 연구와 선행학습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제주지역의 관악 활동사를 조사하여 제주지역 관악 발전에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II. 본론

1. 관악의 발달

가. 관악교육의 역사적 조사

음악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명백하지 않으나, 대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체로부터 규칙적인 역동성을 감득하고 태어나서는 곧 청력과 청각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소리로 식별하고 수용하며 이해 및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¹⁾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인류의 시작과 함께 음악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시야를 좁혀 관악의 발생을 살펴보면 관악기의 사용은 자연과 인간의 거리를 좁혀 주는 매개체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구체적 표현으로도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악기는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첫째는 전쟁과 결부된 도구로써 사용했다. 즉 군인들의 싸움을 고무하고 지휘나 명령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무훈의 동반자로서 자리해 왔다.²⁾

둘째는 사냥이나 부족간의 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재에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촌락간의 통신 수단으로 관악기가 사용되고 있다

셋째로 고대인들은 주술적 도구로 관악기를 사용했다. 고대인들의 관악기에 대한 신념이 아주 영험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실제로 성서 중에는 이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성서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트럼펫과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선두에서 불면서 성을 들었는데 그 여리고성은 곧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넷째로 관악기의 사용은 Dionysus³⁾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악기로써, 현악기의 부드러움과 서정적인 음향에 상반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관악기의 출현은 인류의 발달사와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으며 19C

1)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92, p9.

2) Adlkins, H.E., 「관악론」, 세광음악출판사, 1991, p11.

3)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술의 신

이후 특히 군대의 조직화와 대규모화를 통해 악대의 형태도 점차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었다.

서양 음악은 1984년 갑신정변 이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1885년과 1886년에 각각 설립되고 1887년에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찬송가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음악 교육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학교 관악대는 1902년 연희전문학교에서 현재명 선생의 지도하에 처음으로 창설되었다. 다음으로는 1917년 장로교 내한한 모우리(E.M.Mowry) 박사가 평양 숭실학교에 취임, 악대를 창설하여 연희전문 관악대와 함께 각 지방을 순회하며 양악 보급과 계몽에 힘썼다. 그 덕택으로 각 지방 학교의 관악대에 관심과 열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학교 관악대가 조직된 것은 경성악대가 해체되면서 각 학교에 악기를 기증한 후부터이다. 이때 관악대를 조직한 학교들이 휘문고, 배제고보, 중동학교 등이며, 이들 학교들은 배제고보를 중심으로 후에 서울시내 학교 연합으로 악대를 조직하여 다양한 행사를 펼쳐나갔다. 즉 ‘군악대→경성악대→학교 관악대’로 계승되어 각종 운동 경기의 응원과 교내의 행사 등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관악의 명맥을 이어오게 되었다.⁴⁾

해방 후에는 1946년 문교부 주최로 음악 경연 대회가 열렸고 관악 연맹 주최로 전국 취주악 경연대회가 개최되면서 관악 인수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각 음악대학과 신문사가 개최한 음악 경연 대회는 그 질적 수준 향상을 드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50년부터 1960년 사이에는 많은 학교들이 학교 관악대를 조직하여 그 절정기를 이루었다. 이것은 1949년 9월2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 168호에 따른 대한민국 학도호국단의 발족이 그 토대를 이루면서부터 이다. 그러나 학교 관악대는 학칙 개편이 된 1952년 6.6.4.제도가 6.3.3.4.제도로 바뀜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어져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1960년의 4.19, 1961년의 5.16혁명 후 역시 정치적, 사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학

4) 유재훈, 『한국 군악대의 변천사에 관한 소고』,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p7.

교 관악대는 일대 침체기를 맞아야 했다. 그 후 1975년 학도호국단이 다시 발족됨에 따라 호국단 활동에 따른 각종 의식 행사 및 경연 대회 등의 수요 급증은 학교 관악대는 활성화에 다시없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한 학교 관악대는 과거 행사 담당 위주의 외적 활동에서 벗어나 점차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향으로 활동하였다.

1973년 우리나라 관악 발전 및 국민 정서 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 관악 협회(KBA)가 창립되어 지도자 및 성인 회원 1200명과 16개 시·도지부, 4개 지회에 초·중·고 240여 악대를 갖게 되었고 1976년부터 전국 관악 경연 개최하여 오늘날까지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각 학교 악대가 활발히 재건되고 있고, 경제 침체와 입시 문제,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 관악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 정부에서도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 개혁을 강조하며 전인 교육 차원의 예·체능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나. 우리나라 관악의 활동

1) 우리나라 관악의 시작과 군악대

우리나라 관악사의 첫 시발은 군대에 필요한 나팔고대(喇叭鼓隊)부터이다.⁵⁾ 1876(고종13년) 한일조약 체결로 군대의 현대화를 시작하면서 한국인 24명을 일본 육군 교도단 소속 도요마 학교에 군사 훈련 차 보냈는데, 그 유학생 중 이은돌이 나팔 교습(프랑스식) 성적이 우수하여 일본 해군 군악대에 편입되어 정식으로 나팔 주법을 교습 받아 1882년 9월 20일 수료증을 받고 귀국하였다. 1895년 11년 15일 한국 정부에서는 나팔고대의 예산을 세우고 고대 도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1896년 러시아의 서울 총영사 외베르 후임도사로 슈페이어(Speyer)가 장교와 하사관 30명을 대동하여 부임하여 한국군의 군사 훈련을 시작했으며, 그 후 120명의 러시아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켜 러시아식 나팔 주법을 지도했다.⁶⁾

5) 남궁요열, 「한국음악 총람(상권)」, 한국음악협회 발행, 1991, p362

그 후 1900년 12월19일 칙령 제 59호로 군악대창설이 공포되었고 지도자로 독일인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1916)를 초빙하였다. 그는 이미 일본에서 20년간(1879~1900)일본 해군군악대를 지도하여 일본의 관악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었다. 1910년 2월27일 에케르트가 입국한 이후에 50인조의 단원을 조직하고 6월에는 복장과 악기를 갖춘 명실상부한 군악대가 창설되었다.⁷⁾ 에케르트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5년 12월에 군악대가 해산될 때까지 당초 계약기간 3년을 넘기며 만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관악발전에 노력하였다.⁸⁾

해산된 군악대를 1920년 스미스 박사의 주선으로 경성악대라는 이름의 민간단체로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이 또한 1922년에 예산의 어려움으로 해체되기에 이른다. 구한국군악대와 경성악대를 거친 단원들은 이 때부터 유량악단에 입단하거나 학교에서 음악교육과 악대조직, 관악인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배출된 관악인력들이 1946년 봄부터 국방경비대에 악대조직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부터 육·해·공군 군악대 창설에 기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여년의 역사를 갖는 군악대는 각 군별로 현대식 연습시설과 좋은 악기를 구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찰악대도 창설되어 그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이들의 활동은 군·경 내의 각종 행사를 비롯하여 정설화 된 수준과 비유의 특유의 기동성으로 정기연주회, 해외 및 지방 순회연주 등을 통하여 각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대학·일반 관악대

1917년 평양숭실학교와 1929년 연희전문학교의 관악대는 학교 관악대의 효시이며, 1920년 구한국군악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경성악대는 일반(민간)관악대의 효시이다.

그 동안 대학에서는 주로 오케스트라 활동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관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틈틈이 중주활동을 펼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대체로 40명 내외의 인원

6) Ibid., pp362~384.

7) Ibid., p364.

8) 최문호, 「우리나라 최초의 군악대(한국관악협회 10년사)」, 한국관악협회, 1983, p11.

을 필요로 하는 관악합주는 음악학과 혹은 음악교육과에 비해 학생수가 많은 음악 대학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 활동과 병행하여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져 전임교수의 지도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80년대 이후의 변화된 대학의 모습이다.

민간단체로서의 관악대는 그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에 의한 자생적 집단이라는 데에서 바람직한 문화형태이다. 하지만 어떤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조직운동을 위한 행정력이 필수조건이 된다. 대부분이 민간관악단체가 의욕적인 출발에 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단체의 연주자들은 대부분 이미 특정 직업인으로서 교직에 종사하거나 유급 관현악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 등에서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며 이로 인해 그 수준 향상을 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들의 활동범위에서는 항상 차선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꾸준한 활동을 펼친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악단체가 서울 윈드앙상블이다. 또 다른 경우는 기업이 관악대를 운영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소기업인 린나이코리아(주)에서 관악합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주력이 있는 고교, 군악대 출신들을 사원으로 우선 채용하여 일반 업무와 함께 일정시간 합주단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체육부문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3) 학교 관악대

학교 관악대는 학생들의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예비교육활동, 단체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그리고 연주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봉사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국내 중견 관악인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 관악대에서 음악에 입문하여 대학, 군악대 등을 거치고 있어 학교 관악대는 전체 관악 활동의 시발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내 학교 관악대의 효시는 1917년 평양숭실학교 관악대이며 1929년 연희전문학교의 관악대가 생겼고, 이후 해방과 더불어 6.25 이전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여러 학교에 창설되었으나 5.16을 전후하여 침체하였다.

1973년 한국관악지도자회가 결성되면서 부흥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1976년 KBS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한국관악대지도자회가 주관한 전국고교관악대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이른다. 그러나 그 이후 활성화의 기운은 높았으나, 1978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교 연합고사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1978년 이전의 입시제도는 학교별 선발형식으로 특기생 입학전형에 의해서 음악기능이 우수한 학생의 고교진학이 용이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학교 관악대가 많이 조직되었고, 기능 면에서 연계성에 의한 발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고교평준화를 목표로 도입된 고입연합고사의 제도는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파행으로 치달았고, 이로 인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계된 학교 관악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단체 활동과 합주를 겸한 관악교육은 학교사정에 따라 존재의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대학진학을 위한 개인교습에 의존하면서 과중한 과외비 부담을 야기했고, 또한 단체 활동 중심에서 점차 개인 활동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고교연합고사 실시 이후의 새로운 풍토는 전반적인 관악대의 침체에 비례해 여자 고등학교 관악대의 조직과 그 활동이 두드러진 점이다. 이것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체육행사를 위한 Marching Band에 여학교 참여가 두드러졌고 여자대학교에 관현악과 설치가 확산되면서 관악전공의 문호가 넓어진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입시제도 시작 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전국의 여러 교향악단에 여성연주자들의 비율이 70% 넘게 진출해 있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차원을 떠나 고교연합고사의 제도 정착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라 하겠다.

4) 한국 관악협회

관악단체의 조직은 1946년 10월 전국취주악연맹과 1947년 관악연구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결성된 것이 그 효시이나 6·25 때 모두 해산되었다.

본격적인 관악단체의 활동은 1973년 9월29일 서울에서 한국관악지도자회가 조직된 이후이다. 이 조직체는 매년마다 전국 시·도에서 순회하면서 대한민국 관악제9) 경연대회를 주최하였으며 지도자연수회, 청소년관악연수회, 해외교류 등 활발

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0년도에는 관악지도자 중심의 조직에서 관악인 전체의 조직으로 확대키 위해 한국관악협회로 단체명을 바꾸었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에 16개의 지부와 한국마칭지도자협회를 비롯한 25개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다.

다. 제주지역 관악의 역사¹⁰⁾

1) 제주 관악의 태동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도는 중앙의 문화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정객들의 유배지로 인식되어 왔을 뿐, 빈곤한 생활 속에서 문화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여 왔다. 이러한 제주에 관악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것은 일제가 군국주의 교육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서였다.

1930년대 중반 이후 1945년 8·15해방 때까지 여러 소학교에서 관악대의 활동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마을에서의 신호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 집합신호와 행진, 훈련 등에 활용하는 정도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도민들이 음악 등 예술 방면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1942년에 설립된 애월보통학교 관악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5 해방과 미군의 주둔(제주도의 경우 1945년), 도제 승격(1946) 등이 이루어지고, 일제 말기부터 이루어졌던 보통학교 중심의 관악활동은 제주초급중학교¹¹⁾에서 1947년 제주도 최초의 9인조 중등학교 관악대를 창설하기에 이른다. 이후 이 관악대는 제주읍을 중심으로 각종 의식행사를 통해 4·3사건으로 혼란스러운 도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았고, 선무곡장대 내의 절대적인 존재로 많은 활약을 하였다. 더불어 이 관악대를 중심으로 동척회사¹²⁾, 제주농업중학교 관악대(1949) 등의 활발한

9) 전국관악제에서 1992년 제17회 제주대회부터 개칭

10)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예술·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2004, pp37~41

11) 현, 제주중학교

활동은 음악적 불모지에서 도민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6·25와 제주 음악

해방 당시 극히 미약했던 제주의 음악은 6·25전쟁 때 피난 온 이성삼, 이성재, 계정식, 변훈, 박재훈, 김금환 등 여러 음악인들에게 자극을 받으며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험이 부족했던 도민들에게 순수 예술음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시켜주었고, 제주의 음악인들은 이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제주 음악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특히 제주의 관악은 6·25동란을 계기로 많은 발전을 보게 된다. 당시 제주 주둔 C.A.C부사령관 Charles E. Gilbert 소령은 오현고등학교, 한국보육원, 제주농업고등학교, 제주중학교, 구세군보육원 등에 악기 및 악보를 기증하고 직접 지도에 나서서 관악을 부흥시켰다. 이와 함께 제1훈련소 군악대장 강문홍 대위도 각급 학교 Band를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어 관악대의 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갔다.

많은 활동을 해 오던 당시의 관악대들은 종전 이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군악대와 경찰악대가 철수하게 되자, 오현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악대는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한편 오현고등학교 관악대는 끊임없는 활동을 통하여 전국적인 관악대로 발돋움해 나아갔다. 불과 창단(1952) 3개월 만에 대외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관심을 끌었고,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남 진주에서 개최되는 ‘개천예술제’에 1953년도부터 참가하여 16년 간 연속으로 우승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1956년의 서울대 음대 주최 전국 고교 취주악 경연대회와 1976년 KBS배 쟁탈 전국 고교 관악대 경연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였고, 1970년과 1971년에는 예총 목포지부가 주최하여 열린 ‘목포예술제’에서 전 부문 최고 득점을 획득, 2회 모두 특상을 받는 등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그 저력을 보여 주었다.

12) 제주 주정회사의 전신, 1947년 말 소규모 직장 관악대 창설

3) 1960년대의 제주 음악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본격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경제부흥의 초석이 된 경제개발계획이 이 시기에 수립되었고 온 국토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재건의 몸부림을 친 시기이다. 음악에 있어서도 이 시기는 6·25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음악인들 스스로 창조적으로 음악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62년 음악협회가 결성되고 점차 활동의 폭을 넓혀 가면서 제주예술제와 한라문화제¹³⁾ 등에 해마다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음악의 수준을 높여 나갔다. 같은 해에 조직된 탐라합창단, 1963, 1964년 두 차례에 걸친 안익태 초청공연 등 종전과 다른 자생적 활동이 이 시기 제주 음악인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관악 활동은 50년대 후반부터 약 10여년간 오현고등학교 관악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러 학교악대가 창설되면서 제주의 관악은 그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64년은 효돈중학교에,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중문중학교에, 1966년에는 서귀중학교에 관악대가 창설되어 관악을 통한 정서교육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많은 관악인들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67년에는 세화고등학교에, 1968년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 관악대가 창설, 발대식을 가졌다.

4) 1970년대의 제주 음악

70년대의 제주 음악은 이전 시기의 음악활동을 기반으로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시기이다. 음악인 혹은 음악 동호인들이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연주회를 개최하거나 국내의 저명 음악인 단체들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열었고, 음악이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특히 학교 음악 중심의 경연대회와 예술제 형식의 특색 있는 음악회가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저변확대가 왕성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관악활동으로는 제주제일고등학교 관악대가 창설(1971)된 것을 시작으로 제주상

13) 1962년 제주예술제로 출범하였으나, 1965년부터 한라문화제로 개칭되었고, 2002년 제 41회부터 탐라문화제로 개칭됨

업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및 영진보육원 등에 새로운 관악대가 창설되는 등 음악의 저변확대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음악활동이 전개되었다. 또 관악대 지도자들의 조직체인 한국관악대지도자회의 결성(1973)은 관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오현고등학교 관악대의 도외 경연대회에서의 좋은 성과와 서귀중학교 관악대의 진주 개천예술제에서의 우승 등은 제주 관악의 위상을 도외에 과시한 또 하나의 쾌거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 관악활동은 시련을 겪게 되어 학교 악대는 활동을 중단하거나 침체되어 갔다. 그러나 발전된 사회적 여건으로 음악인들은 국내외의 관악인 및 음악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며, 이들이 지도·배출한 관악도들은 국내의 여러 음악대학에 진학 한 후 전문 관악인으로 성장하여 저명한 연주단체나 교육일선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5) 1980년대의 제주 관악 활동

1981년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신설과 함께 시작된 제주대학교 윈드 심포니는 관악 전공 학생들로 이루어진 합주단이다. 1986년에 창단연주회(지도 이선문교수)를 시작으로 많은 연주회를 가졌다. 또한 관악 연주자들과 지도자를 배출하여 제주 관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1996년도 대한민국관악제(대전)와 제주국제관악제 및 아·태관악제 등 수 차례 연주회에 참여했으며,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2006년 현재 20회를 맞이하고 있다. 故 이선문교수에 이어 현재는 허대식교수의 지도하에 새로운 제주 관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문예회관이 건립되는데, 이는 제주의 음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또한 대정고등학교(1982),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1983), 대기고등학교(1986), 남녕고등학교(1987) 등에 관악대가 창설되고, 탐라관악합주단이 창단(1981)하였으며, 한림공업고등학교 관악대는 제31회 개천예술제(1982)에서 관악합주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였고, 1985년 제35회와 1986년 제36회 개천예술제에서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관악대 출신 동문들이 동문음악회를 처음 시도한 시기이며, 특히

탐라관악합주단은 1985년 제주시립합주단으로, 이어 1987년에는 제주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됨으로써 현재까지 제주도를 대표하는 연주단체로 관현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1983년 제17회 전도체육대회에서는 연합악대를 구성하여 개회식 행사를 맡아 진행하게 되는데, 관악단 활동이 실외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입증하게 된다. 이러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1984년에 열린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이다. 이 때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제주도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체육행사로써 연합악대가 개·폐회식 진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 행사에서의 대규모 연합악대 운영의 성과는 이후 계속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관악활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주게 되며 1990년대에는 연합악대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6) 1990년대 음악과 국제관악제의 탄생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는 개발전략을 찾고자 고심하게 되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정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외국의 국가원수 등 국민들의 방문처가 되기도 했던 제주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1998년)된 이후 중앙정부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서귀포시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1997년)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각종 축제나 이벤트 행사들을 개최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더불어 이러한 행사에서 음악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음악활동의 양상도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제주시립교향악단과 제주시합창단, 서귀포시립합창단 등 시립음악단체들의 활동,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 등의 음악관련 학과 신설, 대학의 음악관련 학과에서 배출된 음악인들의 활동, 새로운 연주단체들의 잇따른 창단과 활발한 활동, 각종 국제 음악제의 참가 및 개최 등 제주음악은 전에 없는 열기

로 구색을 갖춰 나가게 되었다. 관악에서 출발한 제주의 음악은 문화·예술인구의 급속한 저변확대와 시대적 분위기에 부응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 보인 시기였다.

한편 한국관악협회가 해마다 주최하는 전국관악제가 제17회 대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관악제로 타이틀을 바꾸어 1992년 제주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열린 전국 규모의 관악축제였다. 더구나 이 행사는 국내 관악사상 가장 큰 규모와 내용으로 열렸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관악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28명으로 1993년 5월 1일에 창단한 한라 윈드앙상블은 현재는 50여명의 관악인들이 모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청주, 대전 익산 등 국내 도시와 교토 등 일본의 중소도시와도 활발한 음악교류를 통하여 제주 관악의 기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창단에서부터 현재까지 김승택선생이 지휘자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관악제와 여러 해에 걸친 제주관악제의 성공적 개최, 각종 행사에서의 연합악대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4년에는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Asia & Pacific Band Directors' Association)에 제주연합악대가 참가하게 되었다. 이때 참가국 관악단체들과의 관악정보교환 과정에서 제주에서의 국제적인 관악축제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Jeju Summer Band Festival)로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제주국제관악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음악춘추의 보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8월 일보 하마마쓰에서는 제8회 아시아태평양국제관악제가 열렸다. 제주 연합교관악대가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는데, 이때 지휘를 맡았던 이상철¹⁴⁾선생은 그곳의 열기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축제가 열린다면, 특히 해마다 여름철이면 휴양인파가 물리는 ‘바람의 섬’ 제주에서 관악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당시로서는 제주도와 시의 지원이나 기업의 협찬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도

14) 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부위원장

같이 어려운 일이었으며,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제주도 이도 1동의 한 건물 지하에 초라한 사무실이 차려졌고, 직원이라고 해봤자 이상철선생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제주 토박이 관악인이 다였는데, 월급은커녕 사재를 털어 가며 자원봉사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 여름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실현되기에 이른다.”¹⁵⁾

이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적 개최는 단연 1990년대 제주 음악계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수많은 축제들이 알맹이 없는 축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내에서 특성화로 성공한 몇 안 되는 축제 중의 하나였다.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적 개최 이후 제주고교연합악대는 1996년 홍콩에서 열린 제9회 아·태관악제에도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열리는 제주국제관악제도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국제적인 관악활동을 통한 제주 관악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1997년 3월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관악대가 창설(지도교사 양승보)되어, 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윤경자선생이 관악대를 맡으면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8년 2월 6일에 창단한 서귀포시립관악단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탄생한 시립관악대로 다른 중소도시에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시 연수구의 구립 관악단과 경상남도 양산의 양산시립 관악단을 창단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분석, 연주함은 물론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으며, 창단에서 현재까지 양경식¹⁶⁾지휘자가 맡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 개최되었던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연합악대 구성의 성과가 꽃을 피운 것은 연주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이전까지의 전국체전과는 달리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연합악대를 활용함으로써 체전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대규모의 연합악대가 선수단 입장에서부터 개·폐회식, 행사 전 과정을 담당하여 제

15) “음악춘추”, 2004년 8월호, pp46~47.

16) 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 부지회장

주 관악인들의 축적된 역량을 살려 장엄하고 특색 있는 연출로 제주 관악의 우월성을 전국에 과시하였다.

7) 2000년대 제주 관악 활동

2000년 5월 31일 창단한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관악대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Jazz Big Band라는 전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Big Band 편성으로서 정통 Jazz에서부터 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표현하며 현재 가장 왕성한 공연활동으로 주목받는 Band로 성장하였으며, 지도에는 창단부터 현재까지 김재용선생이 수고하고 있다.

2003년 10월에 개최한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350명의 연합악대(고교연합악대, 해군제주방어사령부 군악대, 제주경찰악대)와 800여명의 합창단(신성여고 합창단, 사대부고 합창단)이 대규모로 개·폐회식, 행사 전 과정을 담당하여 음악체전(감독 최광석, 지휘 김수봉)으로 승화를 시켜, 제주관악의 자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국간의 음악교류와 우정의 증진, 회원국간의 Band활동과 지원, 교류의 증진과 Band 레퍼토리, 학습법 교환 및 Band활동과 관련한 정보 증진 및 강화, Band 지도자 전문 육성에 관련한 정보 교환의 증진 및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APBDA, 2004. 8. 14 ~ 8. 18 5일간)는 2004년 제주국제관악제의 앙상블축제와 관악콩쿠르 기간 중에 함께 열려, 단원들이 세계적 수준의 금관앙상블 공연과 세계 젊은 관악인들의 열띤 경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올해 2006년도는 다른 해와 달리 활발한 관악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우선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의 관악대가 탄생된다. 5월초에 제주서중학교가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조직위원회의 후원에 힘입어 30인조 관악부가 창단(지도교사 김성주)되며, 6월 달에는 제주도 초등학교 중 유일의 관악부인 화북초등학교가 42인조 편성으로 관악부가 창단(지도교사 김재현)하며, 또한 여중생으로 구성된 신성여자중학교 관악부가 10월에 30인조 구성으로 창단(지도교사 송건중)될 예정이다.

또한 매년 8월에 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에서 열리는 2006제주관악제는 1991년부터 시작하여 전 제주관악인 함께 참여하는 전통 깊은 축제의 마당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경연(2006. 8. 10 ~ 8. 20)은 제주국제관악제조 직위위원회에서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관악인들을 발굴, 육성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 경연을 통해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의 대중성을 추구하는 홀수 해의 Band축제로, 전문성을 추구하는 짝수 해의 앙상블축제와 관악경연이 함께 함으로써 보다 완성된 관악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섬, 그 바람의 울림!(ISLAND, RESONANCE OF WIND!)을 주제로 한 제11회 제주국제관악제(1회:1995년)는 제주도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연대감 고취, 음악의 정신·하모니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고,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추구하는 세계적 관악축제, 국제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을 축제의 목표로 제주도 전역에서 2006년 8월 12일(토)부터 8월 20일(일)까지 관악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또한 2006년 8월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2006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제주대회(2006World Championship of Marching Show Band, Jeju, Korea)도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데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2. 고등학교 관악대 활동

가. 관악대 활동의 교육적 효과

인간은 원천적으로 음악에 대한 필연적 욕구를 지니고 있고, 또 이를 육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으며 노래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음악적 본성의 발로가 되는 것이다. 노래뿐 아니라 악기로 연주를 한다던가,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인간이 지닌 음악적 본능의 일환이며, 이것은 예로부터 기악이 발달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누구나 타고난 이 음악적 잠재능력을 교육을 통해 계발·육성하고 정서를 순화시켜 조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적 기틀을 마련해주는 일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어떤 특정한 음악 기술인을 배출시키기 위한 기능연마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며 이해하고 음악을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관악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주된 역할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기악연주를 통해 음악적 생활을 내면화시켜 인격형성에 큰 도움을 얻게 하는 일이다. 고등학교 시절은 인간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황금의 시기이다. 학생 개개인은 자신이 지닌 음악적 재능을 다양하게 연출해 봄으로써 자기실현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며, 미적 감수성을 갖게 되어 인간의 미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합주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 협동심과 책임감을 돈독히 키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기표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관악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대내외적 행사활동을 통해서 대중에게 음악을 호흡하게 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 조성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다. 교내·외 각종 체육대회나 문화행사 등에서의 연주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융화와 단결·협동심을 고취시키며 개인적으로는 음악에 대한 친근감, 악기에 대한 호감 등을 갖게 하여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게 하는 측면이나, 국가적 측면에서는 나라 사랑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악활동을 통한 취미 활동으로 성취감을 증대시킬 수 있고,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여가 활동을 즐기게 되어 안정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다.

나. 관악대 활동의 문제점

일반 학교의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개인의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음악적 감수성, 즉 지각력과 반응력을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계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음악 예술은 인간의 삶에 이로운 것이고,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며, 삶의 경험을 강렬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공유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은 오랜 역사를 통해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교육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음악 교육은 음악적 체험을 통해서 음악성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풍부히 하여 조화된 인격을 형성하여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음악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음악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음악의 본질적 목적에서 벗어나 대학진학이나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또한, 자율 학습이나 보충수업으로 인해 특별활동으로서의 관악대 활동은 타 교과에 밀려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관악대 활동에 대한 관리자 및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 관악대 시설의 미비, 관악대 지도교사의 부족 등의 문제점과 관악기를 불면 흔히 폐가 나빠진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관악대 활동이 일반 학업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하여 관악대 활동을 반대하는 타 교과의 교사들도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고등학교의 관악대들은 학교 특별활동의 목적이 아닌 대외적인 행사를 위한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므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개의 학교가 관악대를 창설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으며, 이 관악대를 운영하기 위한 방음된 관악대 연습실 등 부속시설과 수리비, 악기구입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빈약하며 지도교사의 과외지도 수당 및 애로점은 고려하지 않은 형편으로 관악교육이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제주지역(고등학교 중심) 관악대의 운영 실태 및 악기 보유 현황

가. 관악대의 역사 및 활동

1) 남녕고등학교 관악대

남녕고등학교는 1985년 2월 학교법인 남녕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1986년 3월에 개교하였으며 1987년 3월에 관악대 창단 계획을 수립, 55점의 악기를 구입하여 1987년 10월 5일 발대식(지도교사 이용범)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관악대는 50명의 학생들이 입시로 인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자신의 특기 신장과 정서 순화를 위해 문화적 환경이 열악함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교내 활동으로는 해마다 3월에 신입생을 위한 환영 음악회, 7월 19일에는 개교기념 경축 음악회인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송 열린음악회’를 통하여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외 활동으로는 제주관악제, 제주국제관악제 등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문화행사와 의식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김상우선생 지도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2) 대기고등학교 관악대

대기고등학교 관악대는 1985년 11월 22인조로 시작하였으나, 연습장소가 협소하여 지하실 및 폐차된 버스를 정비하여 그 안에서 연습을 시작하였으며, 1986년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1989년 9월 2일에 K.B.S배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금상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전국민속경연대회, 전국체전, 제주도민체전 등, 각종행사에 참여하였으며, 국제관악제 및 제주관악제 등에 다수 출연하여 호평을 받았고, 지난 해 11월에 제17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지금 현재 40인조 편성으로 관악대를 창단한 홍영희선생이 지도를 맡고 있다.

3) 대정고등학교 관악대

대정고등학교 관악대는 6·25전쟁 중에 학교가 개교됨에 따라 1954년 16인조로

출발하여 제주 오현고등학교 관악대와 함께 도민 문화의 일익을 담당케 되었으며 특히 육군 제 1훈련소 군악대 장병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조력을 많이 받으며 성장 발전하다가 그 맥이 제 1훈련소 공병대가 이동 되어버린 1955년 이후 서서히 끊어져 버렸다. 당시 전란 중 피난 온 여러 선생님 중에는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시던 교수 출신 선생님들이 많았으니 그 중 음악을 가르쳐 주신 김금환¹⁷⁾선생께서 관악대 태동의 산파역을 맡으셨고 육군 제 1훈련소 군악대 김강섭¹⁸⁾씨를 중심으로 많은 군악대원들이 수시로 대정고등학교 관악대를 파트별로 지도해 주었다.

26년간 대정중학교와 병설로 형 아우가 함께 공부하다가 1979년 2월 말 모슬봉 남녘 기슭에 자리한 새 교사로 대정고등학교가 분리 이설됨에 따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무실역행의 교훈 아래 청운의 뜻을 품고 음악과 함께 하는 학생을 키워 나가려는 일념으로 1981년 강달훈교장께서 방일하여 재일본 대정출신 독지가들에게 당시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말씀하고 관악대 재창단의 기회를 만들어 이정근·덕빈 형제분과 임수근씨 등이 앞장서서 재일본 대정출신들의 정성으로 44인조 관악대가 다시 태어났다.

처음 지도교사로 한영철선생이 지휘봉을 잡고 재 창단 되어 좌문철, 양승보, 김홍철, 강금구, 최광석선생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현재 윤정택선생이 지도하고 있다. 대정고등학교 관악대는 ‘모슬포 방어축제’, ‘남제주군 청소년 어울마당’, ‘성화 봉송 행사’ 및 각종 지역 내 체육대회 행사, 그리고 정기연주회인 ‘산방음악제’를 매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연 4회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2005년 5월에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가파도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9월 1일에는 ‘제3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기념하여 대정읍 관내 주민을 위한 ‘귀향음악회’와 제주도내 관악대와 음악관계자를 대상으로 ‘고향사랑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남제주군 지역문화 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17)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18) 작곡가, KBS 악단장 역임

4)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관악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1986년 5월29일 김성표¹⁹⁾교장선생 재임 당시 동창회에서 50주년 기념 추진사업의 주요일환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동창의 후원과 모금활동을 통하여 36인조 관악대를 창단 하였다. 당시 음악 교사인 오승식선생의 지도하에 창단연주와 발대식을 성대히 치렀고, 그 이듬해에는 영천축제를 개최하며 '슈페의 서곡과 시인과 농부 외 5곡'의 기념연주를 시작으로 매해마다 영천제를 실시해왔다.

2000년도부터는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주 국제 관악제에 매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여름 탐동연주회의 참여와 교내 행사 연주 등 활발한 활동으로 제주 도민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에는 양성은 선생이 지도를 맡고 있다.

5) 오현고등학교 관악대

오현고등학교는 조선시대에 절해고도인 제주에 유배되었던 다섯 선비의 얼이 담긴 오현(五賢)이라는 이름으로 1951년 개교하였다. 관악대는 당시 음악교사인 고봉식선생의 주도로 학생들의 모금운동과 미국인 Charles E. Gilbert소령의 도움으로 1952년 6월에 창설되었다. 창설이래, 오현고등학교 관악대는 학생들의 취미신장과 정서순화는 물론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제주도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의식행사에 참여하여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50여년 오현 관악대의 활동은 제주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1953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열린 제4회 영남예술제(후에 개천예술제로 개명)관악경연에 처음으로 출전하여 최고상을 수상한 이래 1973년까지 16연승을 비롯하여 1956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주최 전국 고교관악경연대회 준우승, 1971년 호남예술제 우승, 1976년 제1회 KBS배 전국관악경연대회 은상 수상 등 화려한 입상경력을 갖고 있고, 1994년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와 1996년 홍콩에서 열린 제9회 대회에 한국고교연합악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였으며, 1998년 3월에

19) 현) 제주도 교육위원

는 일본 평안여자중고등학교 취주악부와 한·일 고등학교 친선음악회를 갖기도 했다. 무엇보다 매년 9월에 열리는 개교기념 정기연주회는 제주도내 기악연주회의 효시로써 제주 관악과 청소년문화를 선도해왔으며, 1984년 500여명 교악대동문들의 의지로 시작된 동문음악회도 11회에 이르고 있다.

남과 북으로 한라산과 푸른 바다를 마주하는 별도봉 기슭 오현음악관! 현재 국내 250여 학교관악대 중에서 오현 관악대는 50여년 이라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이곳에서 진취적이며 조화로운 관악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가 매우 높다.

매년 개교기념정기연주회와 동문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는 학생들의 등교 시에 교문 앞 연주(동절기는 제외)를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Jazz Trumpet 연주가인 히노 테루마사씨가 97년, 98년 2회 방문하여 Trumpet을 기증하였고, Trombone 연주가 Armin Rosin씨가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또한 오래된 악기들을 진열하여 단원들에게 전통의식을 심어 주고 있다.

고봉식, 김승택, 박창표, 이선문선생에 이어 1986년부터 이상철선생이 지도를 맡고 있다.

6)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관악대

제주농업고등학교²⁰⁾의 음악 교육은 공립제주농림학교 1910년 5월 2일 개교부터 시작되었다. 악기 연주는 1920년에 하모니카 합주단이 있었으며, 해방 후 제주농업고등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은 강계돈²¹⁾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애월중학교에서 관악대를 가르치다 1947년 10월4일에 제주농업고등학교로 부임한 그는 제일동포의 독지가의 도움으로 15인조 관악대를 창설하였다. 그 이후 제주도 최초의 관악대인 제주중학교 관악대를 지도했던 김구배의 노력으로 제주농업고등학교 관악대는 1948년 관덕정 광장에서 첫 발표회를 열게 되었다. 다음해에는 861부대 창설기념식 행사에 제주중학교와 합동연주를 가진 바 있으며 1950년 6·25전쟁직후 부두에서

20) 현,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21) 전 법무부 장관 강금실 아버지 1911년생

출정 전송행사를 가지기도 했으나 아깝게도 4·3사건과 6·25전쟁으로 악기가 분실되고 대원들도 학도군으로 출정, 거의 해체 상태에 이르렀다. 1947년 강제돈 이후 제주농업고등학교의 음악교사는 부종휴(1949. 9.30~1950.8.6), 변훈(1951.10.31~1952.8.10), 김국배(1958.4.12~미기재), 이윤행(1962.4.27~미기재), 좌운국(1974.1~1976.4.15), 이봉주(1977.3.1~1982.3.1)이다. 6.25이후 관악대 창설은 이윤행의 부임으로 21인조를 재결성하여 활동하였으며 학교 내에 있던 한국보육원의 Band와 함께 미군의 CAC사령관 Gilbert소령의 도움을 받았다. 1975년 좌운국선생 부임 때 제주도의 지원금과 동문들의 기증으로 목관악기 15점과 금관악기 19점 타악기 5점 등 39점의 악기를 보유하여 1979년 11월 1일 이봉주선생에 의해 재건 발대식을 가졌으며, 현재에는 강지윤선생이 지도하고 있다.

7)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관악대(Jeju Marine Concert Band)

새로운 학교 문화의 창출이라는 취지로 문화의 불모지와 같았던 동·남부지역에 문화의 꽃을 피우고, 학생들의 음악 특기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2000년 5월 31일 제주도교육청과 남제주군, 그리고 성산수산고등학교(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의 옛 명칭) 동문회의 도움으로 관악대가 창단 되었다. 다양한 음악장르를 표현하기 위해 악단구성을 Concert Band와 Jazz Big Band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가 자랑하는 Jazz Big Band는 제주는 물론 전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Big Band 편성으로서 정통 Jazz에서부터 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표현하며 현재 가장 왕성한 공연활동으로 주목받는 관악대이다. 지도에는 창단부터 현재까지 김재용선생이 수고하고 있다.

8)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관악대

관악대가 생긴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올해가 관악대 창설한지 10주년이 된다. 1997년 3월 김성표교장이 부임하면서 도교육청이 지원을 받아 관악대가 창설되어 양승보선생의 지도와 자원봉사를 지원한 이상현 강사가 초창기 때부터 관악대 운영 및 지도를 도와주었고, 전영순선생이 1999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5년간

관악대를 지도하였다. 그리고 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윤경자선생이 관악대를 맡으면서 처음으로 외부로 나가 관악대의 대외 활동을 하였는데, 2004년 8월 제주관악제에 참가하여 전교생들에게 사대부고 관악대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제주시내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 주었다.

또한 2004년 국제 관악제의 시가행진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뜨거운 박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전교생들에게는 제주관악제에 참가하는 여러 학교의 특색 있고 다양한 음악의 세계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연주회장에서의 성숙한 매너와 자세로 음악 감상한 느낌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여름 해변공연장에서 두 번째 제주 관악제에 참가함으로써 사대부고의 관악대 위상을 한층 드높였으며, 2005년 국제 관악제의 시가행진에 참가하여 당당하고 기풍 있는 연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9) 제주상업고등학교 관악대

제주상업고등학교 관악대는 김충환선생의 지도로 1976년 6월 40인조로 창단하고 그 다음해인 1977년 고경화선생이 부임해 오면서 매년 정기 연주회를 비롯하여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제주도 최초로 일본 오단이 고교와 교환 연주회, 1994년 일본, 1996년 홍콩 아·태관악제에 제주도 연합악대로 참가하는 등 제주도 내외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제주상업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개편되어 현재 남학생 35명 여학생 20명 등 총 55명 대원이 김행중선생 지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0)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대

1983년 6년 23일 47인조로 제주시민회관에서 창단 연주회(지도교사 이봉주)를 갖고, 그 해 9월 10일에 88인조의 Marching Band로 재편성하여, 1984년 5월에 개최한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전 선두 악대로 참가하였다. 또한 제34회(1984. 11. 5), 제35회(1985. 11. 4), 제36회(1986. 11. 5) 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최우수

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4일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여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1987년 9월에는 제주도 순회연주회(시, 군 포함하여 7회 연주)를 가졌으며, 1996년 11월 24일에는 중국 심양에서 열리는 Marching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2006년 8월에 개최하는 ‘2006 세계마칭쇼챔피언십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강금구선생과 대원들이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11) 제주제일고등학교 관악대

1971년 12월 4일 학교자체에서 구입한 악기로 24인조로 편성, 제주시민회관에서 발대식(지도교사 강휘남²²⁾)을 갖고, 다음날 5일에 국민교육현장 선포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이하는 정기예술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행사 활동을 중심으로 한 백호기 응원과 원보훈련 및 대내·외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도교사는 김성훈선생이 맡고 있다.

12) 한림공업고등학교 관악대

한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100만원, 북제주군청 및 한림라이온스클럽에서 각 50만원 한림청년회의소에서 30만원 등 각지에서 3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마련하여 1979년도 3월에 창단(지도교사 정승구, 지도강사 강경수)하였다. 초창기 관악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해 6월 재일 교포의 도움으로 악기를 기증 받았다. 창단 4년 만에 1982년 개천 예술제에 참가하여 대상(지도교사 이봉주)을 수상하였다.

1983년에는 전국 관악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지도교사 송 현), 1984년에는 제주에서 최초로 관악대 내에 현악 합주부를 창단(지도교사 송 현)하여 운영하였으며, 1994년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와 1996년 홍콩에서 열린 제9회 대회에 한국고교연합악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1997년에 북제주군에서 2,000만원, 도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유치하여 필요한 악기들을 구입하여 관악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합주실을 증축하여

22) 현, 제주로얄 악기사 대표

비 오는 날에도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각종 대내외 행사와 제주 순회연주회 및 한수풀 음악제(장소:한림읍민관, 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 지도교사 김수봉) 공연을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05년에 북제주군에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음악실 및 악기를 보강·확충하여 북제주군 한림에서 처음 개최된 도민제전에 한림공업고등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한 연합악대가 음악 제전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 한편 같은 해 8월 열린 제주관악제(장소: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에도 참가하여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2006년 8월에 개최하는 ‘2006 세계마칭쇼챔피언십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나. 각 학교 관악대 악기보유 현황

※ 각 학교명은 약칭을 사용하였다.

남녕고(남녕고등학교), 대기고(대기고등학교), 대정고(대정고등학교), 서산과고(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오현고(오현고등학교), 관산고(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관해고(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사대부고(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상고(제주상업고등학교), 제주여상(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일고(제주제일고등학교), 한림공고(한림공업고등학교) 이상 12개 고등학교 관악대.

목·금관 악기 보유 현황 I

(2006년 3월 현재)

파트	구분 족	악기명	수량					
			남녕고	대기고	대정고	산과고	오현고	관산고
Woodwind	Flute	Piccolo	1	1	1	1	1	2
		Flute	6	3	4	2	4	9
		Alto Flute						
		Bass Flute						
	Oboe	Oboe	2	1	1		1	2
		English Horen						
		Bassoon	2					1
		Contra Bassoon						
	Clarinet	Soprano Clarinet(E ^b)						
		Soprano Clarinet(A)						
		Soprano Clarinet(B ^b)	10	8	9	7	6	12
		Alto Clarinet(E ^b)						
		Basset Horn(F)						
		Bass Clarinet(B ^b)		1				
		Contrabass Clarinet(E ^b)	1					
	Saxophone	Soprarino Saxophone(E ^b)						
		Soprano Saxophone(B ^b)	1				1	
		Alto Saxophone(E ^b)	4	4	6	5	4	6
		Tenor Saxophone(B ^b)	4	3	5	3	2	5
		Baritone Saxophone(E ^b)	1			1	1	
Contrabass Saxophone(E ^b)								
Brass	Horn	French Horn	4	5	1	6	3	6
	Trumpet	Piccolo Trumpet						
		Trumpet(B ^b)	8	6	7	11	7	12
		Trumpet(C)						
		Trumpet(D)						
		Cornet					1	
		Flugel Horn						
	Bass Trumpet							
	Trombone	Alto Trombone(E)						
		Tenor Trombone	10	6	5	10	5	8
		Bass Trombone(F)						
	Euphonium	Euphonium	3	2	3	3		4
Baritone				1	1	2	3	
Tuba	Tuba	2	2	2	3	3		
	Sousaphone	4			2		1	

목·금관 악기 보유 현황Ⅱ

(2006년 3월 현재)

파트	구분 족	악기명	수량					
			관해고	사대부고	제상고	제주여상	제일고	한림공고
Woodwind	Flute	Piccolo	1	1	2	1	4	2
		Flute	4	10	9	4	3	6
		Alto Flute						
		Bass Flute						
	Oboe	Oboe			2			1
		English Horen						
		Bassoon			2			
		Contra Bassoon						
	Clarinet	Soprano Clarinet(E ^b)						
		Soprano Clarinet(A)						
		Soprano Clarinet(B ^b)	6	9	10	12	11	13
		Alto Clarinet(E ^b)						
		Basset Horn(F)						
Bass Clarinet(B ^b)				1				
Contrabass Clarinet(E ^b)								
Saxophone	Soprarino Saxophone(E ^b)					1		
	Soprano Saxophone(B ^b)	1		1				
	Alto Saxophone(E ^b)	4	5	7	5	5	6	
	Tenor Saxophone(B ^b)	3	4	7	4	4	4	
	Baritone Saxophone(E ^b)	1		1	1			
	Contrabass Saxophone(E ^b)							
Brass	Horn	French Horn	2	3	6	4	4	5
	Trumpet	Piccolo Trumpet						
		Trumpet(B ^b)	8	6		9	9	14
		Trumpet(C)						
		Trumpet(D)						
		Cornet			1	1		
		Flugel Horn						
		Bass Trumpet						
	Trombone	Alto Trombone(E)						
		Tenor Trombone	8	5	9	9	9	12
		Bass Trombone(F)						
	Euphonium	Euphonium	3	3	4	8	3	4
Baritone				1				
Tuba	Tuba	3	3	4	4	3	3	
	Sousaphone	2		1		2		

타 악 기 보 유 현 황 I

(2006년 3월 현재)

구 분		악 기 명	수 량					
파트	족		남녕고	대기고	대정고	산과고	오현고	관산고
P e r c u s s i o n I n s t r u m e n t s	유포악기	Timpani 26" 29"		1	2	1	1	1
		Timpani 23" 26" 29" 32"						
		Xylophone			1			
		Marimba	1				1	
		Vibraphone						
		Bell		1			1	
		Hand Bell						
		Chime		1			1	
	무용악기	Piccolo Drum	1	1	1	1		
		Snare Drum 13"		1		1		4
		Snare Drum 14"	3	1			2	
		Tenor Drum	4		2			
		Bass Drum 36"	2	1				
		Bass Drum 40"	1	1	1		1	1
		Steel Drum(철북)						
		Set Drum(5 Drum)	1	1	1	1	1	1
		Set Drum(7 Drum)						
		Cymbals 18"		1	1	1		
		Cymbals 20"	1				1	
		Finger Cymbals(손가락삼벌즈)						
		Hi-hat Cymbals						
		Wood Block	1				1	
		Temple Block	1				1	1
		Bongo	1	1			1	
		Conga		1			1	
		Tambourine	1	2	1		2	
		Jingle Stick						
Castanets			1					
Gong		1	1					
Tam Tam								
Triangle		1	1	1		2		
Guiro		1	1			1		
Maracas		1	1			1		
Ganza								
Torpedo								
Rainstick								
Timbales						1		

다. 각 학교 관악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악기 공유 방법(문제점 포함)

관악대 활동이 바람직한 교육활동 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첫째, 악기 하나의 가격이 고가여서 손쉽게 구입하기 어렵다. 둘째, 연습 및 연주할 때의 소리 공해로 인해 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 셋째,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의 관악대 활동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관악대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연주 필요성에 따라 구입한 타악기들이 방치됨은 물론, 예산 및 재정 부족으로 인한 고가의 악기(오보에, 바순, 튜바 등) 구입이 불가능하여 좋은 음악을 연주할 환경이 갖춰지지 못했다. 다섯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관악대 운영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도 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관악대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2개 학교의 관악대를 중심으로 각 학교 관악기의 효율적인 악기 공유 방법 및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간 악기목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생들은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연주력 향상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양한 악기 사용을 통한 연주력 향상과 학생들의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주 발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악 연주에 필요한 악기의 부족함에서 오는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각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목록을 공개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가능하다. 학교에서 관악 합주는 때에 따라서는 교육의 목적보다는 연주 그 자체만을 중시할 수도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지도 교사가 다양한 악기를 구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악기 구비 방안을 지도 교사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연주에 필요한 특수 효과음을 내는 타악기(예: 슬라이킥슬, Hand Bell, Guiro, Finger Cymbals, Gong)등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완성된 연주를 위해 특수 악기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두 번 사용할 악기인데 학교 관악대 예산으로 특수 악기를 구입한다면 관악대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관리한다던가, 어느 학교를 지정하여 구입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방법 등을 연구하여 특수 악기 및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는데 따른 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차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타 학교에서 악기를 빌려와서 며칠이 지나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 및 분실할 우려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차증을 이용하여 대여해 온 악기와 함께 표시해 둔다. 그러면 공차한 악기의 반납 시기도 알기 쉽고, 반납할 때 모르고 잊어버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 학교간의 신뢰성을 갖게 됨은 물론, 대여해 준 학교 행사 진행은 물론 악기 관리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넷째. 공차증 활용에 대한 업무의 간소화이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악기에 대하여 공차가 가능하나 대여 후 파손과 분실에 대한 우려로 공차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결제 라인의 번거로움으로 악기 공유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악기 행정업무(공차)에 대한 간소화는 물론, 악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교사에게 일임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다섯째로, 노후 된 악기의 처리 문제이다. 관악대는 특히 악기의 질에 따라서 소리의 질이 다르므로 노후 된 악기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수준 높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악기가 필요하나 특히 특수 악기의 경우 가격이 비싸 구입하기가 어렵다.

여섯 번째로, 시설 부족(연습 공간의 부족)의 문제이다. 관악대는 특히 풍부한 음량을 필요로 하며 금속성의 음색과 폭발적인 타악기 소리가 주변인들에게 소음 공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교 특별 활동으로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악대 학생들의 음악적인 성취에도 지장을 준다. 따라서 소음 공해를 차단하고 학생들의 연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음 시설된 연습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의 예산 관계상 대부분의 학교가 어려움이 있으나 악기의 보충에 앞서

연습실이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북제주군과 관내 행사시 학교 관악대 지원을 약속하여 노후 된 악기 교체 예산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저렴한 경비로 방음 시설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음용 스티로폼이나 종이로 만든 난좌(계란판)를 이용하여 합주실의 천장과 벽면에 붙인다. 그런 다음 벽면에 커튼을 설치하고, 바닥은 비닐을 깔고 스티로폼을 붙여 그 위에 카펫트를 깔아 놓는다. 이렇게 하면 보온과 방습, 방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관악대 지도는 담당 교사 혼자 힘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 경영자가 관악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지도 교사와 학부모, 담임교사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문회를 비롯하여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단체와도 지속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라. 지도교사의 자세

음악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양한 체험을 통한 창의성과 정서의 함양이라는 점에서 관악대 지도교사는 악기의 기능적 소질을 개발하기보다는 관악대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중점을 둔 지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능만을 가르치는 ‘기능 전수장’이 아닌 ‘교육의 장’으로서의 관악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악부 지도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정서 교육을 바탕으로 한 관악 활동을 통해 인간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 일부의 지도 교사들이 경연 대회나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기능 지도에만 치중한 나머지 학생들이 음악 연주 자체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능 지도도 중요 하지만, 정신적인 교육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악기 연주를 잘 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탁월한 연주자로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악 연주 활동을 통해 넓은 예술의 세계로 인도하고 훌륭한 정신문화의 영역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훌륭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아름다운 심성을 지닌 예술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다.

둘째, 지도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관악대는 그 지도 교사와 대원들의 열의가 합쳐져서 운영된다. 그러므로 관악대 지도 교사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관악 지도에 흥미와 매력을 갖고, 책임을 다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면 원만히 이끌 수 있다.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당당하게 밀고 나가는 용기와 추진력, 보다 완전함을 구하고자 하는 엄격함, 좋은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겸허한 태도, 자기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 부원에 대한 너그러운 포용력,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일이 없고 언제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항상 사랑과 인내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관악대 학생과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주변 사람에게 관악대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셋째,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체 합주를 할 때 지도교사는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지켜야만 훌륭하고 바른 연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²³⁾

- 음이 맑게 연주되고 있는가?
- 텅킹이 정확하고 동일한가?
- 연주 자세가 바른가?
- 각 음의 길이와 쉼표 등을 정확히 지켜 표현하고 있나?
- 선율이 정확히 연주되며 흐름이 잘 되는가?
- 음정이 정확히 이루어지나?
- 화음이 잘 어울리는가?

등의 사항을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좋은 연주 효과를 올릴 수가 있다.

23) 서중호, 『중·고등학교 관악대 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27

일반적인 측면에서 지도 교사가 합주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원 모두가 합주를 즐기고 있는가?

연습에 있어서 힘의 배분이 적당한가?

연습에 있어서 변화 있는 연습 방법이 취급되고 있는가?

연습 시 즐거움이 있는가?

등의 여러 가지를 점검해 가며 합주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습에 따른 좋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관악대에 사용되는 악기에 대하여 그 기능이나 구조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악기의 주법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음악 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창과 청음 및 독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덧붙여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더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휘법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를 받아야 할 것이며, 편곡법에 대한 이론에 정진하여야 하고 다양한 연주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²⁴⁾

24) 김성환, 『관악부의 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12~13

Ⅲ. 결론 및 제언

관악교육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대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관악 활동은 많은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정서 순화에 크게 기여한다.

현재 우리나라 일선 교육 현장의 관악 지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지도 외에도 잡다한 업무들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와 실제 학생 지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관악대의 경우, 입시 및 취업 위주의 학교 운영에 따라 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일선 학교에서 관악대가 활성화되려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교 운영자(재단이사장이나 학교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지도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각 학교의 관악대 활동에서 지도교사가 겪어야 하는 애로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행사 및 연주활동에 필요한 악기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와 연습의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관악대 활동이 활성화된 제주지역 12개 고등학교 관악대 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관악대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악대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악기 공유(활용)를 통한 연습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른 선행 작업으로 우리나라와 제주 지역의 관악 활동 역사에 대해 개관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관악교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지역의 관악활동은 고등학생에 치우쳐져 있으며 고입연합고사 실시 이후 중학생 관악대의 활동은 더욱 침체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초·중학생의 관악대에 대한 육성책과 아울러 진학에 따른 지도자 선발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

둘째, 관악대 지도 교사들의 인사 관리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이외의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한 학교의 근무 제한 연한에 의한 잦은 진출에 따라 사학

보다 관악대 활동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 경영자(학교장 또는 이사장)의 관악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관악대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인성 교육 및 높은 수준의 지도가 어렵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계당국은 특수기능을 보유한 교사의 인사제도에 따른 개선책이 요망된다.

셋째, 정상적인 관악대 활동을 위해서는 악기의 구입, 교체, 수리 및 부품구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공·사립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관악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경영자들은 관악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불충분하다. 아울러 관악대 활용도 단순히 각종 행사나 응원 참가에 그칠 뿐 보다 차원 높은 육성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면의 육성책 마련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

넷째, 관악대 지도 교사들에 대한 과외지도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특별 활동시간으로 배정된 일주일 한 시간 지도로 관악대를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지도 교사에게 헌신적인 봉사만 기대해서도 안 된다. 수업 시간 이외의 과외 지도에 대한 수당을 학교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발표기회를 제공하여 성취감을 갖게 하고 연주능력의 향상을 위해 스스로 분발하도록 자극을 준다.

여섯째,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음악을 진지하게 대하여 연주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관악대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도교사가 열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연주회를 통하거나 비디오나 오디오 등의 많은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일곱째, 이와 같은 육성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관악인과 지도교사들의 자주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와 제주지역 관악운동의 초창기부터 2006년도 활동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으나, 이에 관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관악인 및 여러 인사들의 고증과 회고에 힘입은 바 크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현실 속에서 말

없이 교육현장의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내내 지울 수 없었다. 관악대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있는 교육여건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후배 관악인을 양성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 논문이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남궁요열, 「한국음악 총람(상권)」, 한국음악협회 발행, 1991.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1

음악대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대사전」, 신진출판사, 1972.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편,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예술·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제주시·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발행, 2004.

Wade—Matthews, Max, 「세계의 악기 백과사전」, 교학사, 2004.

- 논 문 -

김기래, 『고등학교 관악대의 현황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명배, 『현행 고등학교 관악부의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우신, 『관악합주의 효과적인 지도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이상철, 『문화관광 이벤트로서의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 방안』,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선문, 『제주도 관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정문상, 『관악합주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초보자 지도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사이트 -

<http://www.chejusbf.or.kr>

<http://www.wamsb.2006.jeju.org>



<ABSTRACT>

**A Study of Effective Management of Sharing Instrument for School
Brass Band**

-Focus on 12 High School Brass Band in Jeju-

Kim, Soo-bong

Department of Mu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Dae-sik

Due to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which puts an entrance examination first, it is a pity that the peoples interest to the education for art and physical aptitude decreases. Therefore a Brass Band which is operated as par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definitely has more bottlenecks and this cannot be resolved without the devotion of a teacher. It is impossible to demand a devoted effort of the supervisor or a development of systemized method of guidance to the supervisor since they are pressed with routine work all day. When a school administrator (a foundation chief director or a headmaster) continuously has concern for the Brass Band and when he financially supports the Brass Band with enthusiasm of supervisor, we can expect a lively activity of the Brass band.

The Brass Band activity in high school is one good method of experiences various wind instruments and their music. However, insufficien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chools and problems of facility, support, perception, and method of teaching related to the Brass Band operation impedes prosperity of the Brass Band.

Therefore this research has been done to figure out operative problems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instruments and method of management for the high school Brass Band in Jeju. Also with this analysis we can determine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the Brass Band such as sharing of instrument when it is needed. Improvement of a performance would be another advantage. The major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following.

First, Have we understood national or Jeju wind instrument history properly?

Second, What i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wind instrument and how is it managed? Is there any problem?

Third, What would be more effective way of sharing instrument to improve performance ability?

For this, we had a research group of the Brass Band supervisors in 12 high schools in Jeju Island. The questions were about management of the Brass Band, practice and performance activity, the actual condition of supervisors and the supplement condition of the wind instrument and its application scheme.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the most of the Brass Band supervisors were man who specialized in the wind instrument. The circumstances and activity conditions were fairly good but there were problems of engaging instructors and purchasing instrument due to the unpaid allowance and limited budget.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from the questionnaire for efficient

management.

First, we have to establish the Brass Band in the various high schools to meet the educational demands.

Second, by intensifying coordinate support system with a school, parents of students, a community, and the local government we have to expand the budget.

Third, we have to lighten a burden of supervisor by engaging instructors for each parts.

Forth, with various instrument we have to improve performance ability and by providing a concert, we have to give a stimulus to play..

Fifth, supervisors should strengthen their lessons of instruments and its history to make students take pride in their activities.

In conclus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solve basic problems that the supervisors undergo. In the school the Brass Band activity should be focused on improving individual musical ability. A matter of the highest priority is amelioration of facility condition. This is a prior settlement for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wind instrument instruction.

If it is required, each school should share their properties to improve performance ability of students and to manage instruments more effectively. Also as an educational activity, schools should make an effort to make each student to develop musical feeling and to have a taste for music. By internalizing values of music, students can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music. The Brass Band activity should provide each student chances of a human mature and self-realization and make them to contribute toward social evolution.

<부록>

관악대 지도교사 설문조사

※ 제주지역의 12개교 관악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용별로 분석,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학교수로 환산·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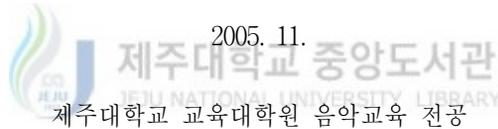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선생님이 학교현장에서 특기·적성 및 계발활동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교의 관악대 연혁과 활동상황, 그리고 악기의 보유현황과 타 학교 및 단체에서 임차와 임대를 원할 때 공유할 수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 결과가 선생님들의 근무하시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설문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평소에 교육되어지고 있는 질문에 맞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수 봉

성별 : 남(11) 여(1)

교육경력 : 5년미만(1) 10년미만() 15년미만(2)

20년미만(5) 20년이상(4)

현근무지 : 제주시지역(8) 서귀포시지역(1)

북제주군지역(1) 남제주군지역(2)

전공 : 관악(8) 현악(1) 피아노(1) 성악(1) 작곡(1)

국악이론() 국악기악() 기타()

※ 각 질문에 대하여 () 안에 ○표 및 서술하여 주십시오.

1. 관악대 이외에 학교 수업 시 학생들에게 관악기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 있다(6) 나. 없다(6)

2. 교육한 경험이 있다면, 주당 2시간씩 1년 68시간으로 가정할 때, 관악기에 대한 교육은 1년에 몇 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 2시간미만(3) 나. 3~4시간(2) 다. 5~6시간(1)

라. 7~8시간() 마. 8시간이상()

3. 교육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교사 자신이 관악기 연주가 어려워서(1)

나. 학생들의 사용할 악기 구입이 어려워서(3)

다. 수업시간을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서(2)

라. 기타(간단히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선생님은 대학교육과정에서 관악기에 대한 교육(전공, 부전공, 기타 연수 포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9) 나. 없다(3)

5.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전공악기는?

가. 금관악기(3) 나. 목관악기(5) 라. 타악기(1) 라. 기타()

6.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선생님의 전공 분야는?

가. 피아노() 나. 성악(1) 다. 현악(1) 라. 작곡(1) 마. 기타()

7. 관악대 1주일 평균 연습시간은?

가. 2시간미만(1) 나. 2~3시간(4) 다. 3~4시간(2) 라. 4~5시간(3)

마. 5시간이상(2) 바. 기타()

8. 선생님은 귀교의 관악대의 역사 및 연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가. 자세히 알고 있다(8) 나. 조금 알고 있다(2) 다. 잘 모르겠다(2)

라. 전혀 모르겠다() 마. 기타()

9.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가. 관심 부족() 나. 자료가 불충분(2) 라. 기타()

10. 교악대를 운영하면서 관악기 비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관악기의 확보량은?

가. 여유가 있다(1) 나. 적당하다(7) 다. 부족하다(4)

라. 많이 부족하다() 마. 기타()

11. 절대적으로 부족한 악기가 있다면?

(악기명 및 수량 : 오보에, 바순, 튜바, 호른, 타악기, 색소폰, 트롬본 순으로)

12. 관악기 부족분에 대한 귀교의 구입방법을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외부지원, 학교발전기금 및 운영비, 교육청지원, 동문회, 개인적 기증 순으로)

13. 선생님은 각종 행사시에 부족한 악기에 대해서 타 단체로부터 악기를 빌려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9) 나. 없다(3)

14. 빌려 쓴 적이 있다면 그 악기명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연주시 필요할 때마다 타악기를 위주로 많이 빌려 씀)

15. 선생님은 타 단체로부터 악기 임차 협조 요청 시 빌려준 경험이 있습니까?

가. 있다(10) 나. 없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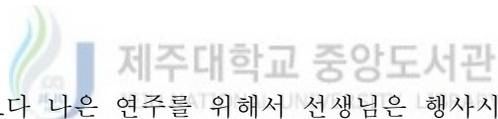
16. 빌려줬던 악기는?

(팀파니, 마린바, 비브라폰, 베이스 드럼, 튜바, 차임벨, 전자악기, 색소폰, 피콜로,
바리톤 색소폰, 트롬본, 클라리넷 순으로)

17. 요청이 있었는데도 빌려준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학교의 악기는 학생들이 항상 연습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다.

파손 및 분실우려)



18. 기회가 된다면 보다 나은 연주를 위해서 선생님은 행사시에 부족한 악기에 대해서 타 단체로부터 악기를 빌려 쓸 생각이 있습니까?

가. 있다(10) 나. 없다(2)

19. 만약 빌려 쓸 수 없다면 그 이유는?

(타 학교 연습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20. 타 단체로부터 악기 사용 협조 요청이 있을 시, 빌려주시겠습니까?

가. 있다(11) 나. 없다(1)

21. 만약 빌려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학교의 악기는 학생들이 항상 연습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다.

악기를 대여 해 줄 때 행정 절차상 문제가 복잡하다)

※ 관악대를 지도하면서 느끼신 점이나 제언사항이 있으시면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²⁵⁾는 지역 아파트에 가까이 인접해있는 관계로 여름에도 문을 열어 연습할 수 없어서 매우 불편하며, 간혹 창문을 열어 연습 시에는 향의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학생들이 연습하는데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다. 우리 학교 음악실은 방음 장치가 되었지만 일부 창가에는 건물 구조 자체로 방음 장치가 되지 않아 애로점이 많다.

앞으로 관악대를 신설할 학교에서는 모든 조건이 합당한지를 검토 한 후 신설되었음 한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관악대의 지도와 연습시간이 무척 어렵다. 1학년과 2학년 점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합주할 시간은 계발활동 1시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튜닝하고 하다보면 30분으로 합주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 학생들의 취미활동과 정서순환으로 관악대에 들어오지만 관악대 활동을 하다보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선배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과 방과 후 석식 시간 20분.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5시까지 개인연습 및 개별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없을 때는 관악대 운영이 무척 힘들다. 그리고 특기적성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이백만원씩 음악 활동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학교는 국립이라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립과 공립으로 구분하지 말고 열심히 음악활동 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지역주민의 협조 없이는 관악대의 다양한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겠다.

25) 현,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관악대 지도교사 윤경자 住

0000고등학교 관악대 연혁

관악대 연혁 및 활동사항(1) :



목·금관악기보유현황1

0000고등학교

파트	구분 족	악기명	수량	악기상태(수량)		현재사용유무(수량)		비고	
				사용가능	사용불능	사용	미사용		
Woodwind	Flute	Piccolo							
		Flute							
		Alto Flute							
		Bass Flute							
	Oboe	Oboe							
		English Horen							
		Bassoon							
		Contra Bassoon							
	Instrument	Clarinet	Soprano Clarinet(E ^b)						
			Soprano Clarinet(A)						
			Soprano Clarinet(B ^b)						
			Alto Clarinet(E ^b)						
			Basset Horn(F)						
			Bass Clarinet(B ^b)						
			Contrabass Clarinet(E ^b)						
	Saxophone	Saxophone	Soprarino Saxophone(E ^b)						
Soprano Saxophone(B ^b)									
Alto Saxophone(E ^b)									
Tenor Saxophone(B ^b)									
Baritone Saxophone(E ^b)									
Contrabass Saxophone(E ^b)									
Brass	Horn	French Horn							
	Trumpet	Piccolo Trumpet							
		Trumpet(B ^b)							
		Trumpet(C)							
		Trumpet(D)							
		Cornet							
		Flugel Horn							
	Bass Trumpet								
	Trombone	Alto Trombone(E)							
		Tenor Trombone							
		Bass Trombone(F)							
	Euphonium	Euphonium							
		Baritone							
Tuba	Tuba								
	Sousaphone								

타 악 기 보 유 현 황1

0000고등학교

구 분		악 기 명	수량	악기상태(수량)		현재사용유무(수량)		비고
파트	족			사용가능	사용불능	사 용	미사용	
P e r c u s s i o n	유율악기	Timpani 26" 29"						
		Timpani 23" 26" 29" 32"						
		Xylophone						
		Marimba						
		Vibraphone						
		Bell						
		Hand Bell						
		Chime						
I n s t r u m e n t s	무율악기	Piccolo Drum						
		Snare Drum 13"						
		Snare Drum 14"						
		Tenor Drum						
		Bass Drum 36"						
		Bass Drum 40"						
		Steel Drum(철북)						
		Set Drum(5 Drum)						
		Set Drum(7 Drum)						
		Cymbals 18"						
		Cymbals 20"						
		Finger Cymbals(손가락삼벌즈)						
		Hi-hat Cymbals						
		Wood Block						
		Temple Block						
		Bongo						
		Conga						
		Tambourine						
		Jingle Stick						
		Castanets						
		Gong						
		Tam Tam						
		Triangle						
		Guiro						
		Maracas						
Ganza								
Torpedo								
Rainstick								
Timbales								